

'개관 1주년' 광양꿈빛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우뚝'

누적 방문객 10만2천여명 기록
지역 독서문화 플랫폼 성장 괄목
어린이 발달 특화 프로그램 운영
동화 샌드아트 공연·인형극 제공



광양꿈빛도서관에서 개최한 주간 행사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책을 구경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광양꿈빛도서관'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역 어린이들의 독서와 체험, 문화 활동을 아우르는 핵심 복합문화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연 광양꿈빛도서관은 단순한 도서 대출을 넘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독서문화 플랫폼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실제 도서관 이용 지표는 지난 4월 말 기준 도서관 누적 방문객은 총 10만2천543명으로, 하루 평균 329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장서 규모 역시 개관 당시 1만4천434권에서 1만9천221권으로 대폭 확충됐으며, 총 4만2천800권의 도서가 대출되는 등 지역 사회의 독서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광양꿈빛도서관의 핵심 경쟁력은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으로 지난 1년간 41개 강좌(214회)와 17회의 행사를 운영해 총 4천600여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했다. 특히 스마트폰 등 미디어 노출이 잦은 디지털 세대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된 '문해력 성장학교'가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읽기-말하기-쓰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천권 읽기 챌린지, 어린이 독서클럽, 어린이 작가학교 등을 통해 아이들의 집중력과 표현력을 길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상상력을 키우는 자율 창작공간 '꿈뜨락'도 도서관의 대표 인기 공간이다. 퍼포먼스형 미술 활동, 독서 연계 쿠키 교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학 실험 등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직접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광양꿈빛도서관은 이번 1주년을 계기로 문해력 성장학교 중심의 독서 교육을 체계화하고, 미래형 어린이 도서관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특히 첫 돌을 기념해 6월 한달 동안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야옹이 수영 교실' 신현경 그림책 작가 초청 강연을 비롯해 모래로 읽는 동화 샌드아트 공연, 블랙라이트 인형극, 각종 독서 이벤트 등으로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양꿈빛도서관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의 성원 속에 지역 어린이 문화·교육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족 단위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독서와 예술, 놀이가 융합된 특화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꿈빛도서관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역 어린이들의 독서와 체험, 문화 활동을 아우르는 핵심 복합문화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연 광양꿈빛도서관은 단순한 도서 대출을 넘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독서문화 플랫폼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실제 도서관 이용 지표는 지난 4월 말 기준 도서관 누적 방문객은 총 10만2천543명으로, 하루 평균 329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장서 규모 역시 개관 당시 1만4천434권에서 1만9천221권으로 대폭 확충됐으며, 총 4만2천800권의 도서가 대출되는 등 지역 사회의 독서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보성군, 전남 유일 국·도비 '청년마을' 모두 품었다

도 공모(쥘라이프도슨트 선정 쾌거)
3억원 투입 '퍼스트펄링 마을' 조성



청년단체(쥘라이프도슨트 관계자)가 '2026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2026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다 규모인 총 4곳의 청년마을을 운영하게 됐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지역 청년 단체(쥘라이프도슨트는 이달부터 3년간 도비와 군비 등 총 3억원을 지원받아 벌교읍 태백산맥문화거리 일원에 '퍼스트펄링 마을'을 조성한다.

특히 군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과 전남형 청년마을을 모두 보유한 전남 지역 유일의 지자체로 등극했다.

'퍼스트펄링'은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무리를 이루는 펄링처럼, 낮은 지역에 과감히 도전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뜻한다. 벌교에 정착한 청년 4명으로 구성된(쥘라이프도

슨트는 벌교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로컬 콘텐츠 발굴과 브랜딩에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전국의 디자이너, 개발자 등 전문 크리에이터들을 벌교로 유치하는 위케어 선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이들은 지역에 머물며 특산품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브랜딩 및 패키지 디자인을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 데이터 수집 키오스크 플랫폼 구축, 지역 문화자산 아카이브 출판 및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사업 3년 차에는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운영 체계를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청년 활동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이상철 보성군 부군수는 "이번 청년마을 선정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튼튼한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 청년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곡성멜론 첫 수출 해의 시장 공략 싱가포르 4t·1천900만원 규모

곡성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곡성 멜론'이 올해 첫 싱가포르 수출길에 오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7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곡성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곡성 멜론의 싱가포르 첫 수출을 기념하는 상차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곡성농협과 농협중앙회 관계자, 멜론 재배 농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선적된 첫 수출 물량은 4t(8kg·500상자) 규모로, 수출 금액은 약 1천900만원에 달한다.

선적을 마친 멜론은 부산항을 거쳐 싱가포르 현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곡성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토양이 비옥해 멜론 재배의 최적지로 꼽힌다.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곡성 멜론은 높은 당도와 뛰어난 식감을 자랑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프리미엄 과일로 각광받고 있다.

군은 이번 싱가포르 첫 수출을 교두보 삼아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며, 꾸준한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곡성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 멜론의 우수한 품질이 까다로운 해외 소비자에게도 널리 인정받고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다각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통해 곡성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무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화순군, 여름철 영농 현장 집중 기술지원

내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운영

화순군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잦은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맞춤형 현장 지원에 나선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를 '여름철 영농 현장 기술지원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여름철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생육 관리와 병해충 예방, 배수시설 점검 등 선제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인 시기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 농업인상담소장과 분야별 전문지도사를 중심으로 영농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밀착 지도를 펼친다. 〈사진〉 현장에서는 각 농가 여건에 맞춘 작목별 재

기술을 전수하고, 기상재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작목에 대한 교육 수요가 물리거나 돌발 병해충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집합 교육을 편성해 전문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최은순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현장을 한층 더 꼼꼼히 살피겠다"며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기술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방문해 신청하거나, 기술센터 역량개발팀(061-379-5453)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시, 오늘부터 '동백 나이트 스탬프 투어'

해양공원·오동도 등서 미션 수행 체험
오는 11월까지 두달 간격 시즌 이벤트

여수시가 낭만적인 밤바다를 무대로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동백 나이트 스탬프 투어'를 선보인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투어는 해양공원, 오동도 등 여수의 대표 야간 명소를 거닐며 미션을 수행하는 참여형 콘텐츠로, 단순한 눈요기 위주의 관람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스마트폰 '여수엔' 앱이나 관광지 곳곳에 비치된 QR코드로 접속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나만의 영화 제목 만들기', '밤바다 포토 인

증' 등 다채로운 미션을 해결하면서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자신만의 영화 한 편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다.

투어는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이달부터 두달 간격으로 계절별 특색을 살린 시즌형 이벤트가 열려 방문 시기마다 색다른 재미를 더해 예정이다.

미션을 모두 완료한 선착순 1천명에게는 지역 내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의 밤을 직접 걸으며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야간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여수만의 야간 감성과 지역 특색을 뽐낼 수 있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성군,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접수

인터넷 오는 10일·방문 내달 10일까지

장성군은 7일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속유기질비료 2종으로, 적기 살포 시 토양 환경 개선과 작물의 생육 촉진, 수확량 증대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군은 매년 11-12월에 진행하던 신청 기간을 올해부터 6-7월로 대폭 앞당겨 농업인들

이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비료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가지로, 인터넷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인 '농업이(e)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7월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지원 단가는 20kg 1포대 기준 유기질비료 1천600원, 부속유기질비료 특등급 1천600원, 1등급 1천500원, 2등급 1천300원이다.

관내 생산 비료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단 실제 내년도 최종 공급 가격은 읍·면 연발 확정되므로 변동될 수 있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교육지원청, 중등 교사 '논술형 평가' 역량 강화 연수

담양교육지원청은 "최근 함평·곡성·장성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2026 중학교 교과별 논술형 평가 문항 출제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논술형 평가의 안착을 위해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논술형 평가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근거한 문항 개발 실습, 객관적인 채점 기준 마련, 학생 맞춤형 피드백 방법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꾸러졌다. 〈사진〉

특히 교사들이 직접 문항을 출제하고 상호 토론하는 실습 위주로 구성돼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참석 교사들은 "다양한 출제 사례를 공유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과 평가의 연계를 강



화하는 유익한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홍 담양교육장은 "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평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채로운 연수를 지속 추진해 역량 중심 교육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